

지역에 맞는 생활 통계가 없다

최근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통계 지표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추위를 이루고 있어 각 자치구 또는 읍·면·동별 맞춤형 생활 통계 생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식 통계가 사실상 전무한 데다 인구, 고용, 물가, 산업활동 등 각종 통계지표를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통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식통계는 총 736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종(47.8%) 늘어난 것으로, 통계

광주·전남 지자체 전국 대상 지표에만 의존 GRDP조차 집계 안돼...지자체 개발 나서야

의 영향력이 사회 각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지표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국한되면서 지역 실정이나 '생활통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전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통계자료 산출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을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각 자치구나 동별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놓은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예컨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식당을 개업할 경우 동종업소의 수나 수요 계층 분석 등 상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인 '시·군·구별 GRDP(지역내 총생산)'조차 생산되지 않고 있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등

6개 지방 시·도가 해당 지자체와 통계청의 협력 사업으로 GRDP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 모두 통계 낙후지역에 해당되는 셈이다.

전남의 경우 광양시가 지난해부터 '광양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광양 사회 통계조사' 등 2가지 지표를 시험조사하는 등 자체 통계 개발에 나섰다. 나머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난 등으로 인해 업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 통계청 관계자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라도 광주·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 등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통계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



아웃도어 상품대전

본격적인 날씨가 철을 맞아 12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등산복을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등산복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는 '아웃도어 상품대전'을 실시한 결과 하루평균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제공>

중소업체 연구개발 연구기관 장비 활용엔 소요비용 60% 지원

앞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가장비를 활용할 경우 소요비용의 60%를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사용료 대신 지불증서)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관기관의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 장비 사용료의 40%만 부담하고 바우처를 구입한 후 연구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된다.

중기청은 올해 50억원의 예산으로 30여개 클러스터를 선정, 5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lee@kwangju.co.kr

은행권 수수료 인하 확산

신한·조흥 내달부터...농협도 이번주 대상 폭 결정

국민은행이 최근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수수료 인하가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의 통합 1주년을 맞아 다음달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창구업무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면서 "인하 시기는 통합 1주년인 4월 초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항목과 폭은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도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종료로 수수료 인하 대상과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항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전자금융 수수료의 인

하를 검토 중이며 우리은행도 수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하나은행도 수수료 인하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은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최근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지난해 은행들이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소투자 '관리장성' 넘기 힘드네

지난해 광주의 한 구(區)가 중국 자매도시에서 열린 무역상담회에 참가, 구 소속 중소기업 5곳이 투자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9월 중국 산둥(山東)성 동인(東營)시에서 열린 경제기술무역협약상담회에 참가, 관내 5개 업체가 중국업체들과 투자 MOU를

교환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투자 계약을 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당시 MOU를 교환한 국내 업체는 광통신이나 아로마가습기 등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중국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중국업체의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MOU 교환 뒤 중국업체들과 업무교류를 지속했고 이 가운데 한곳은 중국을 2차례나

광통신등 5곳 MOU 체결 투자 성사 한 곳도 없어

더 방문, 제품과 기술을 설명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구도 계약성사를 위해 중국정부와 장구역할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없는 것은 양측이 투자 및 기술협력 자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만 기술이전 비용과 방식 등에 의견차이가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횡령된 관리비 돌려받기 쉬워진다

주택관리사 공제조합 설립...조기 배상 추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관리비를 횡령했을 경우 입주자들이 이를 돌려받기가 수월해진다.

지금은 입주자들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사 공제조합이 설립돼 조합이 배상해 주는 길이 열린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 주기 위한 주택관리사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주택관리사협회

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주택관리사들이 일 정금액을 납부해 설립되며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

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을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는 2만5천명 정도이며 이중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9천명 가량이 가입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저축銀 단기에 금 6% 금리 등장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단리기준으로 연 6.0%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 등장했다.

전북 군산 소재 전북저축은행은 1년 만기에 연 6.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전북사랑 정기예금'을 300억원 한도로 특별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연 6.0%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단리 기준 이자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었다.

전북저축은행은 특관 기간 판매한 예금액 중 0.1%인 3천만원을 이웃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객과 호흡하는 명품매장 만들것"



구 수 회 신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제 경영 철학이 '기본에 충실할 것'입니다. 백화점의 기본은 고급화입니다. 광주점의 고급 패션전문 백화점으로 만들어 타 업체와의 차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에 부임한 구수회(49) 이사는 이를위해 광주점을 중부 한 상품구색을 갖춘 호남 최대규모의 쇼핑공간 및 명품매장으로 꾸미겠다고 밝혔다.

구 수 회 신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마케팅과 친절 서비스 강화, 지속적인 지역민과 사업전개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백화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월드컵을 개최 등으로 광주에서 제2의 유통전쟁이 불붙고 있다"며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지역 1위 백화점을 수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주대를 졸업한 구 점장은 지난 1987년 입사해 상품총괄과장, 인천점장, 전주점장 등을 거쳐 현재 현장중심의 경영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Advertisement for 'Sangju Daehak' (상주대학) featuring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Center' (전국 대학지원 교육생모집) and 'Sangju Daehak' (상주대학) information. Includes details about government and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application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ASANG BUNRI' (쌍상버린) featuring a grid of images showing various services and facilities. Includes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the company's commitment to customer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